

거룩한 새날까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3호 주후 2021년 11월 12일(금)

'Charting the New Normal,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만 알도다

특새는 사명이 있는 곳이고
특새는 찬양이 있는 곳이고
특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곳이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특새의 맛과 멋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2시 30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11월 11일 오정현 담임목사님 후집회 중에서



사진제공:뉴스네트워크실

TODAY'S PRAYER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 1 영가족들이 주의 존전에 납작 엎드려 간구할 때에, '준마의 응답'과 '모퉁이 돌의 안정감'과 '말뚝의 인내'와 '화살의 용기'를 주시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부흥의 실체를 경험하고 시대적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2 특새기도대첩에 나아와 마귀를 향해 선제공격을 펼칠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잠복된 불신앙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영적 쾌거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 3 제자훈련의 목회철학과 영적재생산의 본질적 사명이 새생명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적개입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만선과 풍성한 열매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

설교 요약 On

헬렌 김 선교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요 16:3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요 14-16 장).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그들이 다가올 환난에 잘 대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 “환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고별 설교의 시작과 끝에 환난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환난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는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으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9)

저는 2010년 UN직원으로서 아이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아이들과 과부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고국(캐나다)에서는 아이티에서 철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살피는 45명의 아이들, 미혼모들, 성적으로 유린당한 아이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코로나에 확진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를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더 감사한 마음과 확고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현재 아이티 치안 상황은 엉망입니다. 갱들이 민간지역을 점령하고 납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곳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부흥 열전 On

조용한 부흥의 진원지, 프랑스교회

유럽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로마카톨릭과의 극심한 대립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컸습니다. 16세기 초부터 로마카톨릭교회 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의 영향 아래 세워졌습니다. 존 칼빈과 개혁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프랑스에서 로마카톨릭과의 대립에서 당한 박해와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로교 신학과 신앙의 뿌리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태어난 나라이지만, 로마카톨릭과의 종교적 대립 속에 위그노 대학살을 겪고, 순교와 다른 국가들로의 이주를 해야만 했던 **고난의 역사가 프랑스 개신교회의 역사입니다.** 현재 프랑스 내에는 카톨릭 85%, 이슬람 10%, 개신교 2%의 비중으로 약 17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들 중 약 70만 명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비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950년 이후 매년 평균 34개의 교회, 약 6,600여 명의 신실한 성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조용한 부흥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를 향한 사랑의교회 발자취 On



‘안디옥 50/37’ 비전은 2037년까지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미셸 마르반(Michel Marvane) 목사를 비롯한 교회 개척자로 이루어진 팀은 이미 프랑스 동부에 16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4개 교회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마카톨릭이 주류인 프랑스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얼마 전, 디종 선교센터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복음의 서진, 불어권 선교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프랑스 재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미셸 마르반 목사와 디종 따베르나클 교회의 사역, 안디옥



50/37 네트워크에 속한 16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풀 콘서트 On



특별새벽부흥회의 절정은 영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더 높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내 영혼의 풀 콘서트’입니다. 특별한 리허설 없이 우리의 영혼과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인 밀착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일(13일/토) 오전 5:25,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찬양으로 평생의 기도제목이 응답받고, 함께 참여하는 1,310개의 교회마다 예배 회복의 새 판짜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2021 새생명축제

주제: **회복을 넘어 생명의 기쁨으로**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Joy of Salvation)

일정: 2021. 11. 21(주일) ~ 24(수), 사랑의교회 본당

사랑의교회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시대를 위한 생명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2021년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기를 '비욘드(beyond) 코로나'로 뛰어넘기를 소원하며 2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특새 기간 동안 부여주신 은혜의 강수를 태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보내기 위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품은 영혼들이 새생명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도록 기쁨넘치는 생명의 자리에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 이승재 목사 가천교회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 강명옥 전도사 사랑의교회 | 화중부 목사 남서울교회 | 박지웅 목사 내수동교회

찬양간증



소향 가수 | 권인하 가수 | 나무엔 CCM 가수 | 지미선 CCM 가수 | 김도현 CCM 가수 | 송영주 피아니스트



김성결 바리톤 | 노사연 방송인 | 김순영 소프라노 | 이성미 방송인 | 조혜련 방송인



복음도시락



- 복음도시락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태신자를 찾아가 진리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사역 플랫폼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복음도시락 앱에서 초대장 보내기로 공유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사랑의교회 교인 뿐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의교회 앱 하단의 '복음도시락' 배너나 좌측 QR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각성전도집회 스태프 특새소감 On



장윤정 집사

이번 특새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무 달란트도 없다고 생각한 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생명사역으로 이끄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올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실 믿음의 역사를 미리 써 내려가는 믿음보고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민철 집사

코로나로 고립과 단절이 고착화될 것 같은 일상속에서도 특새는 나의 마음에 소낙비와 같은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약으로 텅 빈 것 같은 안아주심의 본당을 보면 왜이리 허전하던지요. '이런 내적 결핍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였는데 이번 특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활력이 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새가 새로운 활력을 주듯 곧 다가올 새생명축제는 2년 만에 대면으로 드리는 현장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초청자와 태신자의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부여지길 기도합니다.



김은미 권사

특새 첫날부터 부여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써 새생명축제의 현장에서 스태프로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축제라 쓰고 대각성 전도집회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이 기간 대각성팀에서는 매일 기도와 릴레이 금식을 하며 마음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새가 전 세계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끌어주신 도구라면 새생명축제는 세계만민에 복음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는 현장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참여교회 간증 On

김요셉 목사 (관사도교회)

20년을 넘게 낙도 복음선 등대2호를 운전하며 전남진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새를 통해 고통과 시련의 회복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주신 달란트를 통해 적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인국 목사 (영월서머나교회)

글로벌 특새로 막힌 것 같은 심령에 위로와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게 하시고, 응답의 단비로 축축히 적셔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영임 권사(일본동경성산교회)

두 자녀들이 한국에 유학하며 처음 신앙생활한 곳은 사랑의교회입니다. 덕분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구령의 열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함께 글로벌 특새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문서윤 (사랑의교회 온라인예배 성도)

늘 잠에 지고 게을러서 새벽에 일어나 본 경험이 손뼉을 정도인 제가 지난 주일예배 특새광고를 보고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글로벌특새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최대 기적입니다.** 친구들이 들으면 기절할까봐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제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알림 Un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미셸 마르반 목사(프랑스 디종교회) '양상블 복음 사역과 기도' (마 28:19-20)
현승원 의장(다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의 삶' (마 25:14-30)

*내일: 오스 기나스 교수(소명 저자) '한 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바톤 넘겨주기' (삿 8:14)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내 영혼의 풀 콘서트'

3. 내 영혼의 풀 콘서트 / 버스 탑승 안내

내일 '내 영혼의 풀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오전 5시 25분입니다. 셔틀버스 탑승시간은 각 버스 별로 다르기에 선타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전노선 편도로 운행됩니다.

4. 기쁨의 잔치와 '특새 개근 선물'

내일(11/13, 토) 특새 마지막 날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두 가정의 귀한 헌신으로 '떡'식혜, '청송 사과'를 준비하였으니, 온 성도가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개근 출석부를 가져오셔서 특새동판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가정당 1개).

5. '특새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헌금' 안내

제19차 가을 글로벌 특별세백부흥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의 단비를 풍성히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특새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 (11/14,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 태신자 작성

내일 태신자 작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품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글로벌특새봉사자선물안내

글로벌 특새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전화통화로 섬겨주시는 권사회, 국내선 교부, 여순장대표 200여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Revival 키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배 후 남측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 주차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금요일 2시 30분 - 7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 - 8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GS파크 24: 2시 30분 - 7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 - 8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9. 은혜게시판 활용

부흥의 현장인 특새의 은혜를 게시판에 담아두고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AGAIN 1988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하도록

특새의 기도의 방향대로 교회와 나라의 역사가 흐르게 하소서!

받은 은혜 쏘지말고, 게시판에 간직하자

☐ 은혜게시판

이곳 동경의 이른 새벽에도 / 유소현

유독 어둡고 조용한 일몰 동경의 아침 4시. 수일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의교회 가을특새를 드리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헬렌 김 선교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으로 어제의 근심과 고난이 지워지고, 감사와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종, 덤으로 사는 삶 / 윤종현

헬렌 김 선교사님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이의 기쁨과 광채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막연히 죽음을 애써 생각하지 않고 사는 제게,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옛 사람은 죽었고 이후로는 주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삶, 주와 함께 걸으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것이니 / 박은정

후집회 시작 전 담임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박혀 귀에 박혀 맴돕니다. 카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한난 중에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고, 헬렌 김 선교사님 말씀에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실체를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계 알람과 시계 밑 그 자리의 은혜 / 오현중

오늘도 우리 부부는 은혜의 기쁨의 기대로 시계 알람이 울리기 5분전, 새벽 1시 50분에 눈이 스스로 떨어져 막내(유치부)와 장남(초등부)을 중무장 시켜 용인에서 본당 2층 시계 밑 그 자리를 사수하러 '천천히 빨리' 달려갑니다. '가을특새'에 매일매일 퍼부어 주시는 은혜를 시계추처럼 묵묵히 매년 끈기 있게 끈짜로 받아 누립니다. 주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기도의 평생 동지 우리 가족에게 감사!

특새의 선물 '첫눈'

조진희 성도

특새를 마치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있어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다섯째날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